

한국GM 군산공장 '군산형 일자리' 활용될까

한국GM "매각의지 강해...몇몇 업체들과 타진 중" 문대통령 전기차 공약 새만금도 후보지로 거론

군산이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난해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이 '군산형 일자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광주형 모델의 타지역 확산 후보군과 관련해 "군산, 구미, 대구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을 거점으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는 송하진 전북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북도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새만금 산업단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로 유명한 대창모터스, 전기버스 제작 업체인 에디슨모터스 등과 한국GM 협력업체 등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 기아테크, 중앙제어, 포밍 등 12개 회사는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 전체 부지의 25%인 30만㎡(약 9만7500평) 가량을 매입,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군산시 등과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만금은 인프라가 부족해 전기차 제조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시설이 갖춰진 한국GM 군산공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군산공장의 경우 제조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을 가진 한국GM이 군산공장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이곳에 전기상용차 자율기반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지만 공장 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국GM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다만 부지가 넓고 규모도 큰 만큼 아직 적합한 매각대상을 정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북도,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몇몇 업체들과도 매각 여부를 타진 중"이라며 "가격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설비 활용 가능성 등 적합성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해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이 '군산형 일자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막감이 감도는 한국GM 군산공장 출입문. <광주일보 자료사진>

은정 넘치는 고창 '희망 나눔캠페인' 고교동아리 등 동참 3억6천만원 모아 목표치 초과

고창지역이 희망 나눔으로 온기가 넘치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2019 나눔캠페인'에서 총 3억5871만 86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억8988만7000원 보다 7000만원 이상 더 모금된 금액이다.

성금은 현금기부 3억2000만원과 물품기부 3800만원 등이다.

고창지역에서는 고등학교봉사동아리를 비롯해 포상금을 전액기부한 자동차 영업사원, 익명의 천사, 매년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계각층의 성금전달이 잇따랐다.

고창 공무원들이 78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소외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명절위로금 등으로 지원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에라도 이웃 사랑에 많은 관심을 주신 단체, 기업 및 군민분들의 사랑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민선 7기 핵심 시책으로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조직 활성화, 기업체·소상공인 나눔과 봉사기부 참여 확산, 공무원 솔선수범 자원봉사 참여 확대,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의 가치 공유 등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전북도 농기원, 천연 염색재료·꽃차 활용 잇꽃 육성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13일 지리산권 특화작목으로 국화과 두해살이식물인 잇꽃(사신)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샛노란 색으로 피어 붉은색으로 지는 잇꽃은 잎에 비타민 B와 C,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나물용으로 많이 쓰인다.

잇꽃 종자는 천연 염색재료나 꽃차용으로 사용한다.

전북도 농기원은 지리산권 휴양지의 경관자원으로 잇꽃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각국의 잇꽃 유전자원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 나물과 식용으로 적합한 우수자원도 개발해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문정섭 전북도 농업기술원 허브 산재시험장 연구사는 "잇꽃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작목으로, 개화 시기 조절 기술과 지리산권 재배법을 연구해 전북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첨단과학산단에 산업용 버너 생산 업체 입주

(주)넥스트가스인노베이션 정읍시와 174억원 투자협약 생산·연구시설 등 조성 계획

정읍시가 조성한 첨단과학산업단지(사신)에 (주)넥스트가스인노베이션이 들어선다.

정읍시는 지난 12일 유진섭 시장과 정성호·안광영 넥스트가스인노베이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가스인노베이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174억원을 들여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1만4491㎡ 부지에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LPG 액 분사 연소 시스템' 특허를 바탕으로 산업용 버너와 버너 응용 제품을 생산한다.

이 시스템은 산업용 노(爐) 등에 연료 공급시 LPG 저장 탱크 내부의 액상 연료



를 기화 과정 없이 액체 상태 그대로 직접 연소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면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료 전환에 따른 시설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공장 등의 조성이 모두 마무리되면

13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저소득층 대상 부부 10쌍 합동결혼식 27일까지 신청자 접수

익산시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부부 10쌍의 합동결혼식을 오는 3월 9일 신광교회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한다.

저소득층과 탈북 동거 부부가 우선 대상으로, 2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결혼식에 필요한 드레스, 턱시도, 메이 크임, 웨딩사진, 식대 등을 시가 전액 지원한다.

익산지역 관공지를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시티투어권과 웨스턴 라이프호텔 숙박권도 준다.

손형국 익산 주얼펠리스 공방장이 결혼반지 세 세트(120만원 상당)도 후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돕자는 취지에 많은 분이 도움을 주었다"며 합동결혼식을 자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미세먼지 최소화 노후 경유차 300대 폐차 지원

남원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남원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물량을 300대로 잡고 18일부터 28일까지 환경과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 금액은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이다.

차량 소유주가 LPG 1t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최대 5명까지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4억8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다.

시는 같은 취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이 경우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하면 7대까지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20대까지 대당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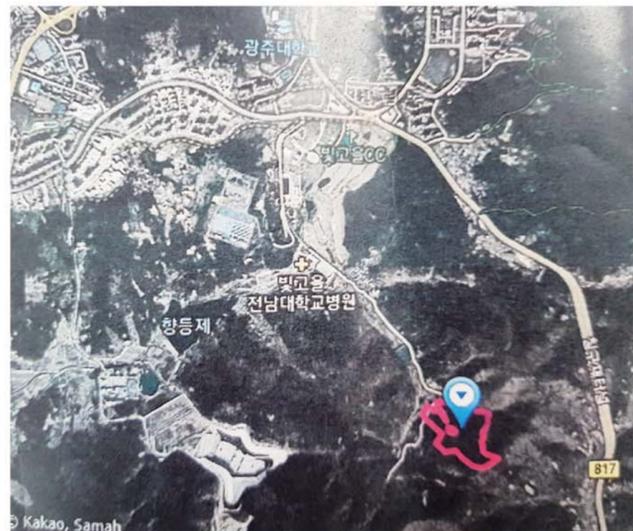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에 2억8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죽향동사무소 옥상 대기오염 측정소를 통해 24시간 미세먼지 데이터를 공개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